

자동차와 아내

노수민
(소설가)

내가 생각해도 아내의 말대로
‘미친놈은 미친놈’인가 보다.

그깟 자가용이 뭔데 아내보다
소중한 것처럼 행동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는 원래 내 물건을 유독
아끼는 성질이 있다. 라이터,
손지갑, 서류 가방, 심지어는
구두, 손수건도 꼼꼼하게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렇다고 땡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부류들과는 달랐다. 단지
소중하게 조심조심 다룰 뿐이다.

어떤 친구는 좋은 라이터도
아무렇게나 긁히고 찍히게
가지고 다니지만 난 열쇠걸이
따위와 함께 주머니에 넣는 법이
없다. 손수건도 어떤 친구는 흥흥
코를 풀거나 음식 찌꺼기를
닦거나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집에 있는 전축, 카세트, 전화
등도 흠집이 나지 않도록 다루는
것은 총각 때부터 정평이 나
있었다.

결혼 후에도 아내는 내 그런
조심성을 좋아하곤 했었다.

집 한 칸을 겨우 장만하고 나서
나는 매일처럼 ‘승용차를 한 대
사알텐데...’하고 노래를 불렀다.

“지금 우리 형편에 차는 무슨



차예요?”

아내는 일언지하에 내 노래를
잘라 버리곤 했다. 운전면허증은
진작 따 놓았고 직장 동료들 차로
충분한 연수까지 받아 놓은
치지니 나는 자동차 사지 못해
안달이 났었다. 그 노래를
듣다들다 끝내는 아내도
자동차를 사는 일에 찬성하고
말았다.

자동차 팜플렛이라는 팜플렛은
다 얻어다 놓고 이 회사 차,

저 회사 차를 놓고 매일 저녁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었다.

아무래도 처녀 총각이 타고
다니기에 좋은 소형차 두
가지에는 눈길이 가질 않았다.

“애들 장난감 같아서
말이야...”

그러자 아내도 최소형차를
권유하지는 않았다. 무엇을 하나
가져도 최상품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내 성질을 이젠 속속들이

알아 버린 때문이었다.

“우리 분수를 아세요?”

내 눈길은 중형차로 향했지만 결국 최소형차를 간신히 면한 자동차로 결정했다. 차종을 결정하고 나니 색상이 또 문제였다.

“작은 찰수록 밝은 색이 커 보인다던데...”

나는 아내의 말을 존중해서 하얀 색깔로 결정했다. 극구 말리던 아내도 그땐 방 떠 가지고 팜플렛을 보고 또 보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들어온 그 자동차는 어느 주인을 만난 것보다 호감을 하게 되었다.

목욕(세차)도 매일 하고, 짝구(왁스)도 매일 바르고, 옷(카바)도 자주 바꾸어 입고, 장신구(액세서리)도

발찌·팔찌·목걸이·귀걸이 달아주고, 털어 주고 닦아 주고 만져 주는 주인을 만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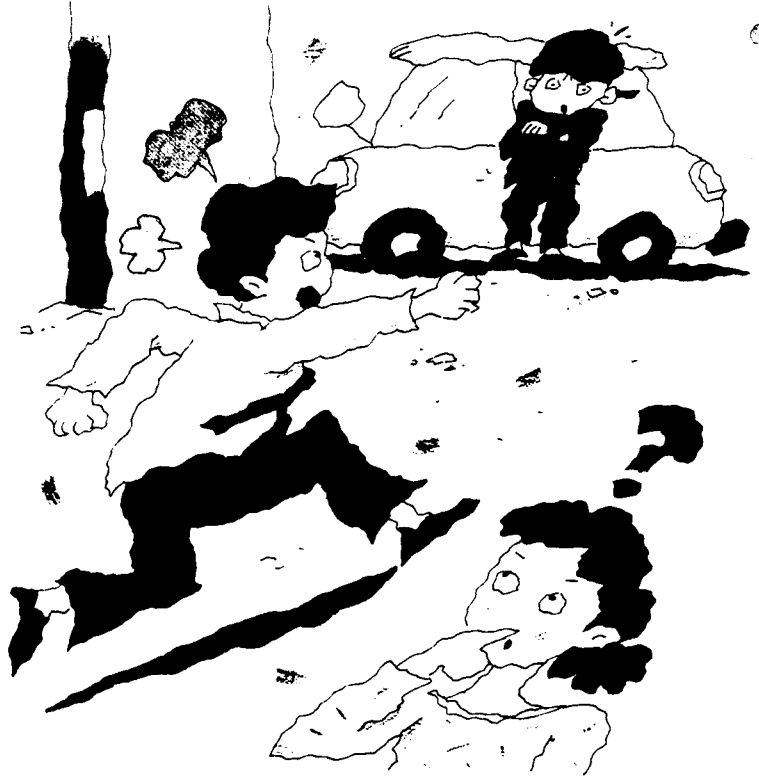
난 거의 차에 붙어 살았다.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 대문 앞에 세워 놓은터라 안심이 안되어 수십 번도 더 내다보아야만 했다.

정말이지 좀 작은 덩치만 되어도 방안에 끌어들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동네 꼬마가 내 차에 기대어 서 있는 꼴도 보지 못해 쫓아내고, 자동차 앞에 라면 껍질 하나만 굴러 다녀도 차가 더럽혀질 것 같아 주워다 버렸다.

“저렇게 좋을까? 병이다, 병이야.”

아내는 내게 면박을 주기도 했다.



처음 차가 출고되던 날은 집에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우리 대문 앞에 다른 자동차 못 세우게 하라고 확인도 하고 다짐도 했다.

“자동차 값보다 전화요금도 더 많겠네.”

아내는 투덜거리며 아예 차가 올 때까지 대문 앞에 나가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을 테니 그렇게 알라고까지 할 정도였다.

“처음인데다가 새로 뽑은 차니까 저러겠조 뭐.”

너무 닦아대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차 없을 땐

심심해서 어떻게 살았나?’하고 빈정거리면 아내는 민망해서 그렇게 대답하곤 했다.

걸핏하면 아내에게 ‘타.’하고는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괜히 처갓집에 다녀오거나 하면서 운전대에 앉았다. 또 어느 때는 주차 공간을 빼앗길까봐 꼭 차로 볼일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너나 택시를 타기도 했다.

6개월이 지나도 나의 그런 자동차 과잉 보호 증세가 가시지를 않자 아내는 차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낮엔 종일 회사에 나가



있으니 볼 수 없고, 집에 와서는 내내 닦고, 만지고 차에만 붙어 있으니 난 당신하고 언제 대화를 해요?”

사실 아내의 불만은 그게 아닌 듯 싶었다.

최근에는 아내를 태워 어디론가 가는 시간보다는 혼자서 뉴시터로 시차로 여행을 가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겨우 돌잡이 아기가 있으니 함께 움직이는 일이 쉽지 않았다. 더구나 아내는 멀미가 심해서 30분만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얼굴이 노래지고 비닐 봉지를

입에 가져다 대야 하는 체질이었다. 그러니 편안하게 혼자 다닐 밖에... 아내가 멀미를 시작하면 애기를 떨어뜨릴까봐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아 운전도 되질 않았다. 또 아내는 너무 자동차를 아낄 줄 몰랐다. 문을 쿵쿵 닫는가 하면, 흠이 잔뜩 묻은 채로 덜렁 차에 올라 앉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뒤좌석에 신문을 준비해 두었다가 비가 올 때 젖은 발로 타거나 진흙발로 탈 때 발판에 신문지를 깔아 주었다. “아예 자동차용 실내화를 따로

장만하지.”

친구들이 놀려대지만 상관없었다. 아난게아니라 나만은 자동차에서 신는 신과 자동차 밖에서 신는 신을 따로 두고 있는 실정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라면 정말 내 차를 타는 사람 모두에게 실내화를 신기고 싶었다.

한번은 회사 직원들이 여러 명 모여 회식을 하기로 하고 음식점으로 가는데 직원중에 제일 체중이 많이 나가는 미스터 김이 내 차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는 100Kg이 넘는 체중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어이 자넨 저 큰 차 타. 이 찬 작아서 내려앉아.”

하고 그를 탄 사람 차에 타게 했다. 그 말에 기분 상하고 충격받아 미스터 김은 다음부터 내 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몇 개월 뒤에 내 차보다 훨씬 좋은 자동차를 몰고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하고 놀려 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하도 투덜거리고 자동차를 미워하는 통에 하는 수 없이 한번 기분 전환을 시켜 주기로 했다.

“멀미약?”

내가 조금 멀리 갈 생각으로 약을 챙기자 아내는 이제 멀미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주 차를 타니까 속도 단련이 되나 봐요.”

그런가 보다하고 안심하고 차를 태웠는데 복악 스카이 웨이를 어느 만큼 돌았을 때 아내가 갑자기 으쓱하며 자동차에 오물을 토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발판뿐 아니라 시트와 문 손잡이, 유리창까지 구토물이 묻어 버린 것이었다. 나는 한견에 차를 세우고 마구 화를 냈다.

“차 다 버렸잖아. 약 먹으라니까 잘난 듯이 괜찮다더니..., 에이! 시트도 버려잖아. 유리창 사이에도 다 들어갔구...”

나는 자동차에 준비된 휴지로 오물들을 닦아 내며 계속 화를 냈다.

“무슨 여편네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게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도 아내는 말 한 마디

않고 잠자코 있었다. 그제서야 아내의 얼굴을 보니 얼굴이 노랗다 못해 하얗게 질리고 이마와 콧잔등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여보, 괜찮아? 멀미가 심해?”

하고 아내를 만지자 그녀는 내 손을 힘껏 뿌리쳤다.

“그깟 자동차가 사람보다 중요하단 말이야? 차라리 마누라 대신 자동차를 데리고 살지 그래?”

그녀는 악에 받쳐 반말을 지껄이더니 비틀비틀 일어나

마침 다가오는 택시에 타 버렸다. “이봐, 이봐.”

엉거주춤 그녀가 토해 놓은 오물을 닦은 휴지를 들고 아내를 불렀지만 이미 아내를 태운 자동차는 저만큼 사라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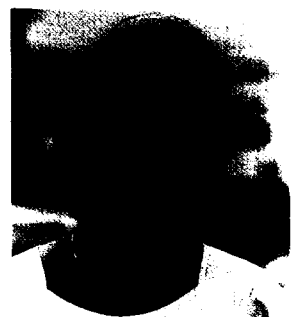
그녀는 그 길로 친정으로 가 버리고는 자동차를 없애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었다.

아내를 데려오자니 겨우겨우 할부로 얻은 정든 차를 팔아야겠고 차를 그냥 가지고 있자니 아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 좀 해 보고...”

여자가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세담.”

나는 머리 속을 정리할 겸 다시금 수도꼭지에 고무호스를 끼우고 자동차를 닦기 시작했다.



노수민

1972년 경희대 국문과 졸업 / 79년 중앙일보 문예대상 소설부분 수상(고독한 파수꾼) / 90년 경희문학상 수상

- 현재 : 한국문인협회 감사 / 국제 팬클럽 회원 / 한국소설가 협회 회원
- 저서 : 고독한 파수꾼 / 황홀한 성 / 위험한 연가 등 다수